『영미연구』
제41집 (2017): 29-48

울스턴크래프트의 『머라이어』에 나타난 근대적 정신병원과 정신의학의 계보학*

윤 준

[국문초록]

본 논문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머라이어』를 푸코가 언급한 근대적 광기의 계보학의 시각에서 읽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울스턴크래프트는 머라이어가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탈출하는 이야기를 통해, 18세기 말에 탄생한 근대적 정신병원과 정신의학이 어떻게 여성과 여성의 광기를 감금하고 처벌했는지, 또한 어떻게 그것들에 저항했는지 실감나게 보여준다.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머라이어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안다고 가정되는 정신의학적 시선의 관찰 대상이 된다. 또한 다른 수용자, 즉 "광기의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의 잠재적인 광기를 감시하고 관찰해야하는 정신의학적 시선의 주체가 될 것을 강요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을 광인으로 간주하는 정신의학적 시선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또한 머라이어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지만, 정신의학 담론이 강요하는 "진실-말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자신만의 대항-서사를 통해, 정신병원 감시원 제마이머를 설득하기에 이르며, 그녀와 이루는 우정의 공동체를 통해 정신병원과 정신병원 내부로부터의 전복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울스턴크래프트, 『머라이어』, 푸코, 정신병원, 정신의학

---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0824).

I. 들어가며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의 『머라이어』(*The Wrongs of Woman, or Maria* 1798)는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이 소설을 통해 18세기 말 영국에서 형성되고 있던 근대적 정신병원과 정신의학이 어떻게 여성의 목소리를 광기로 치부하며, 그녀를 감금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들에 저항했는지 잘 보여준다. 본 논문은 푸코(Michel Foucault)가 『광기의 역사』에서 근대적 정신병원과 정신의학의 형성과 관련해 중요한 시기로 언급하는 18세기 말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참조하면서, 『머라이어』에서 정신병원과 정신의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두 국가 장치는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을 감금하고 억압하는지, 또한 여성은 그 국가 장치들에 어떻게 저항하는지 보일 것이다.

푸코의 계보학은 역사, 혹은 주인 서사의 허구성을 고발하는 대항-기억(counter-memory), 대항-서사의 생산을 의미한다. 지배자에 의해 쓰인 역사는 하나의 "구축된 이야기," 즉 "허구"에 다름 아니며, 피지배자의 이야기들을 억압하고 삭제하면서 쓰인 이야기라는 것이다. 푸코의 "근대적 광기의 계보학"은 근대적 인간의 탄생을 위해 광인의 이야기가 억압당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그/그녀가 어떻게 그 주인-서사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보여주고, 그/그녀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윤준 127, 주 2).

『머라이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의 광기를 다룬다. 직접적으로 여성과 여성의 광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비평가들, 예를 들면 스몰(Helen Small)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광기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에도 여성의 광기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머라이어』를 18세기 감상주의 소설 전통과 관련시키는 비평가들은 감상이 광기와 연결되는 방식을 분석한다던가, 여성의 성(sexuality)을 중심 주제로 다루는 비평가들 또한 여성의 성과 성적 욕망이 광기와 관련되는 방식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머라이어』를 고딕 소설로 분석하는 비평가들 또한 고딕 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 정신병원이 등장하는 양상에 대한 고찰도 돋보인다.

여성의 광기, 정신병원, 정신의학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많은 비평가들이 정신병원이 작동하는 역사적 조건은 간과한 채 정신병원이 오로지 여성의 억압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는 방식만을 강조한다. 토드(Janet Todd)에 따르면, 머라이어가 "감금된 정신병원은 은유적인 기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법적인 기관이다"(*Feminist Literary History* 106). 이어서 토드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간과한 채 "그녀와 그녀의 글을 역사로부터 끄집어내"면서 정신병원을 은유로만 다루는 비평가들을 비판한다. 예를 들면, 마클리(Arnold Markley)는 정신병원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에 대한 완벽한 은유로 쓰인다"고 말하고(61-2), 스펜서(Jane Spencer)는 "머라이어의 감금은 세상에 처한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은유"라고 말한다(135). 이러한 해석은 18세기 동안 여성의 우울증이 감금 가능한 질병이었던 역사적 상황은 간과한 채 정신병원과 정신의학이 여성에게 실제적으로 자행한 억압을 밝히지 못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광기를 상징화하고 은유화하는 해석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살피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심지어 몇몇 비평가들은 정신병원이라고 써야하는 문맥에서도 정신병원이라고 쓰지 않고 감옥이라고 쓴다. 예를 들면, 울스턴크래프트의 "감옥 배경의 선택은 가부장 사회에 의해 여성들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 상징했다"(Gunther-Canada 136). "감옥은 모든 여성들의 삶의 일부인 감금과 억압에 대한 상징적인 재현으로 보인다" (Berglund 112). 하지만 머라이어가 감금되는 장소는 범죄자를 감금, 처벌, 교정하는 감옥이 아니라 "광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 수용소," 즉 광인을 감금, 관찰, 치료하리라 여겨지는 정신병원이다(Wollstonecraft 119). 무엇보다도, 베들럼 정신병원(the Bedlam asylum)에 대한 그녀 자신의 방문[1]은 그녀로 하여금 당대의 정신병원과 정신의학 담론에 대한 그녀의 사유를 촉발시켰을 것이며, 이로부터 울스턴크래프트는 정신병원으로서의 세계, 혹은 정신병원-세계(madhouse-world)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 것이다.

『머라이어』는 광기의 역사, 혹은 정신병원의 역사, 정신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중의 하나로 꼽히는 18세기 말에 실제적, 역사적으로 그 국가 장치들과 관

련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에 대하여 남성이 아닌 여성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작품이다. 본론에서 필자는 푸코가 탐구한 근대적 광기의 계보학을 참조하면서 『머라이어』에서 근대적 정신병원이 재현되는 양상과 일망감시 체제로서의 정신병원에서 작동하는 정신의학적 시선을 다루고, 정신의학 담론의 탄생과 정신의학이 진실-말하기 체제를 통해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광기라는 허구를 진실로 탈바꿈시키는 방식을 살피겠다. 본 논문은 그 두 국가장치의 억압뿐만 아니라 주체의 저항까지도 다루는데, 머라이어는 모든 것을 본다고(all-seeing) 가정되는 정신의학적 시선의 감시와 관찰 아래에 놓이지만,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의해 정신의학적 시선의 허구성과 불완전성을 폭로하며,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자신의 광기를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정신의학 담론의 진실-말하기 체제에 저항하며, 그것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대항-서사, 대항-기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II. 근대적 정신병원

『머라이어』는 단순히 머라이어에 관한 서사일 뿐 아니라 근대적 정신병원이 탄생하는 과정에 관한 서사이기도 하다. 푸코가 주장하였듯이 광기는 환자가 아니라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시선에서 탄생한다. 이 소설은 의식을 잃었던 그녀가 정신을 차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장면 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그곳에서 의식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팔에 수갑이 채워진 것"을 발견하고 감옥에 감금되었다고 생각한다(Wollstonecraft 163). 그러나, 그녀의 추측과는 다르게 그녀가 감금된 장소는 정신병원, 보다 구체적으로 18세기 말 영국에 세워진 사립 정신병원이었다.

『머라이어』는 18세기 말 영국에서의 사립 정신병원의 출현을 보여준다. 자신의 고백의 말미에서 정신병원 감시원인 제마이머(Jemima)는 "이 광기의 사적인 수용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설명한다(Wollstonecraft 205). 이 사립 정신병원은 1774년의

문서에 따르면 “수도권소재의 인가받은 정신병원 16개”(Parry-Jones 30) 중의 하나인 “런던 교외의 한 수용소”이다(Gunter-Canada 136). 『머라이어』의 공간적 배경을 위해서, 울스턴크래프트는 아마도 이중 하나를 선택했을 것이다. 제마이머는 그녀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과 “유사한 정신병원에서 감시원으로 있었고, 자신의 오래된 직업[정신병원 간수]에서 훨씬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에 의해 고용되었다고 말한다(Wollstonecraft 205). 고든(Lyndall Gordon)이 지적하듯이 “18세기 동안 사립 정신병원들은 돈벌이가 되었다. 이들 병원은 ... 울스턴크래프트가 폭로하는 것과 같이 관리되지 않았다”(342).

푸코에 따르면, 18세기 후반에 광인을 사회로부터 추방하고 사회와 분리시키기 위한 전근대적인 “감호(confinement)”로부터 그들을 근대적인 정신병원에 감금시켜 치료하기 위한 근대적인 “감금(imprisonment)”으로의 역사적인 이행이 발생한다(*History of Madness* 420). 이와 같은 감호에서 감금으로의 역사적 변화는 쇼월터(Elaine Showalter)의 기념비적 저서인 『여성의 질병』(*The Female Malady* 1987)에 잘 나타난다. 그녀는 서문을 『머라이어』에서 머라이어가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뒤이어 피넬(Philippe Pinel)이 비세트르(Bicêtre)로부터 광인을 해방하는 장면을 병치시킨다(1-3). 18세기말에 발생했던 감호로부터의 해방과 감금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변화와 더불어, 광인은 전근대적인 지하감옥에서 해방되지만, 곧이어 그/그녀는 근대적인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정신의학적 시선과 담론의 대상이 된다.

감호에서 감금으로의 역사적인 이행과 함께, 감시, 관찰, 훈육과 같은 정신병원 실천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공간의 분할과 배치, 공간화(spatialization)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간분할과 배치를 통하여 광인은 범죄자, 부랑자, 거지와 함께 갇혀 있던 지하감옥에서 해방되고, 범죄자는 감옥으로, 부랑자와 거지는 노동교화소로, 광인은 정신병원으로 분리되어 감금된다. 이를 통해 광인과 광인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는 첫 번째 분리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정신병원 내부의 공간분할이 발생한다. 이 분할을 통해 광인들은 다른 광인들과 분리되어서 각각의 병실에 격리된다. 이러한 격리를 통해 수

용자들 사이의 광기의 전염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 권력이 광인을 통제하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리와 이를 통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독대가 가능해진다. 이 조우에서 환자는 의사의 권력에 완전히 복종해야하며, 이 복종을 통해서 환자의 광기는 보다 더 용이하게 관찰, 감시, 통제, 치료되게 된다.

『머라이어』에는 수용자를 정신병원 권력에 복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격리, 분리, 신체적 자유의 박탈과 같은 다양한 정신병원 실천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머라이어는 충분히 자신의 순종성과 제정신임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원을 산책할 수 없다"(Wollstonecraft 170). 제마이머가 "감호의 엄중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머라이어는 그녀의 순종성을 입증해야만 한다(170, 167). 순종성을 입증한다면, 조금이나마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이고, 그에 따라 정원 산책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처벌 시스템뿐만 아니라 "보상 시스템" 또한 수용자를 통제, 감시, 훈육하는데 중요한 장치로 작동한다(*Psychiatric Power* 154).

이와 같은 다양한 정신병원 실천들을 보여주는 근대적 정신병원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광기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탄생했다. 푸코에 따르면, 18세기 후반 사회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개인들, 예를 들면, 범죄자, 범죄 혐의자, 부랑자, 거지, 광인 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the apparatus of security)"가 탄생한다(*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18). 정신병원과 정신의학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인과 광기를 감금, 처벌하는 안전 장치로 작동한다. 따라서 광인은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광기의 야생적인 힘"은 정신병원 권력과 정신병원 담론으로 지배하고 제어되어야할 대상이 된다(*Psychiatric Power* 8).

18세기 동안, 정신병원은 사회와 남성에게 위험한 이상 행동으로 여겨졌던 우울증과 우울증 환자를 광인으로 감금시킨다. 스몰에 따르면, 18세기부터 정신병원 수용자들의 대부분은 히스테리와 우울증을 겪는 여성들이었다(27). 머라이어는 단순한 우울증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쪽 주장만으로 정신병원에

감금된다. 18세기 동안 우울증과 히스테리가 감금 가능한 질병이었다는 시대상을 고려한다면, 왜 그녀가 광인으로 감금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머라이어는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감금됨으로써 정말로 미쳐버릴 수도 있는 위기,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광기 혹은 정신병(psychosis)을 겪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2)]

III. 정신의학적 시선

푸코는 광기가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시선에서 탄생한다고 말하였다. 이 점에서 『머라이어』의 시작이 매우 시사적이다. 이상한 행동과 우울증을 이유로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된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감옥인가 추측할 따름이다. 이때 그녀와 제마이머의 첫 조우가 이루어진다. 그녀는 자기를 바라보는 제마이머의 정신의학적 시선에 정면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첫 번째 조우에서 수용자들의 "산란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교육을 받은" (Wollstonecraft 205) 제마이머는 "마치 머라이어를 겁먹게 하려는 듯이 단호하고 침착한 걸음, 강인한 인상의 얼굴, 머라이어의 눈에 고정되는 크고 검은 눈"으로 머라이어에게 다가선다(164). 제마이머가 정신병원의 소유주로부터 교육받고 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수용자들을 겁먹게 하는 것이다. 다른 수용자들은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들의 의도[음식 거부]를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제마이머는 이틀 동안이나 음식을 섭취하기를 거부하는 머라이어에게 "구름을 보기보다는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좋을 걸"이라고 말하고 음식을 먹도록 명령한다(164). 음식혐오는 "광기" 때문에 생긴다고 단정하는 제마이머에게 머라이어는 그녀의 음식 거부는 아기를 남편에게 빼앗긴 것에 대한 "슬픔"에서 기인한다고 대답한다(165).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라이어는 "그녀의 순종성(docility)을 충분히 증명하기 위하여 차분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165).

근대적 정신병원에 감금된 머라이어는 광인의 광기를 꿰뚫어 본다고 가정되는 정신의학적 시선의 관찰대상이 된다. “머라이어의 눈에 ... 그녀의 검은 눈을 고정”할 때, 제마이머의 눈은 이미 정신의학적 시선으로 작동한다(Wollstonecraft 164). 이 시선은 머라이어의 음식 혐오는 광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간파하는 정신의학적 시선이다. 이 조우에서 머라이어는 제마이머의 “탐색하는 눈”과 마주하면서 “내가 진짜로 미쳤다고 생각하니?”라고 묻고, 제마이머는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지? — 때때로 이성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로지 좀 더 자세하게 관찰되어야하는 한에서 만이지”라고 대답한다(164). 따라서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광인으로 여겨지는 머라이어는 그녀의 순종성과 제정신임(sanity)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사역할을 하는 제마이머가 체현하고 있는 정신의학적 시선의 관찰대상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의학의 시선은 권력의 위계적인 분배와 그 시선에 대한 수용자의 복종을 통해서만 오로지 작동할 뿐이다. 푸코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일망감시적 기계이고, 병원이 치료하는 것은 바로 일망감시적 장치로서이다”(*Psychiatric Power* 102). 시선의 위계적 배치로 인해 모든 것을 본다고 가정되는 “영구적인 시선의 잠재적 권력 아래에서, 혹자가 자신의 광기를 내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혹자가 주시 당한다는 것,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알게 될 때이다”(102). 이와 같은 정신의학의 작동방식을 간파한 머라이어는 제마이머에 의해 광기로 여겨지는 그녀의 우울증적인 슬픔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제정신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의학적 시선의 권력에 잠시나마 그녀 자신을 복종시키는 체한다.

사실 정신의학적 시선이 일망감시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all-seeing), 모든 것을 안다는(all-knowing) 가정은 하나의 허구일 뿐이다. 일망감시 장치를 고안한 벤담(Jeremy Bentham)은 “허구들이 어떤 효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허구를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제하는 문제를 다루”는 허구 이론을 만들어낸다(Miller 26). 이로부터 그는 허구를 조작하는 일망감시장치(Panopticon)를 고안한다. “즉, 수감자가 자신을 언제나 감시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중앙감시탑의 일망감시적 감시자의 존재 유

무는 그에게 알려질 수 없도록 고안되고, 그 결과로 수감자 자신은 중앙감시탑의 감시자에 의해 언제나 감시당한다고 상상하고, 허구적으로 상상되는 감시자의 감시는 전지전능한 감시의 시선이 되는 것이다"(윤준 128-9). 정신병원은 일망감시장치로 작동을 하며 정신병원 수용자는 이 감시의 시선을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광기를 스스로 처벌하고, 그것을 박멸하리라 기대된다.

머라이어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본다고 가정되는 일망감시적인 정신의학적 시선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머라이어는 제마이머가 체현하고 있는 정신의학적 시선에 짐짓 복종하는 체한다. 무엇보다도, 머라이어는 미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즉, 제정신인 사람조차도 미쳐버리게 되는 정신병원에서,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처벌하는 시선(punitive gaze)을 견뎌냄으로써, 그리하여 미치지 않음으로써, 수용자를 광인으로 간주하는 정신의학적 시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안다고 가정되는 정신의학적 시선의 허구성, 폭력성, 불완전성을 폭로한다.

관찰 가능한 정신의학적 시선의 대상으로서의 머라이어는 또한 다른 수용자들의 광기를 관찰하며 정신의학적 시선을 내면화하는 정신의학적 시선의 주체가 될 것을 강요받기도 한다. 격리된 병실에서 머라이어는 오로지 "초조한 영혼들의 감옥"을 볼 뿐이다(Wollstonecraft 174). 무엇보다 제마이머는 머라이어에게 "인접해 있는 병실에 방금 전에 들어온 사랑스러운 조증환자(maniac)를 묘사함으로써 생각해 볼만한 주제들을 던져준다"(175). 그녀는 머라이어로 하여금 광기에 대해 이성적으로 따져보도록 광기의 완벽한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광인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다른 수용자의 광기를 목격하고 자기 자신의 광기를 "광기의 거울"에 투사하면서, 머라이어는 그녀 자신의 광기를 보도록 기대된다(*History of Madness* 499).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만일 의사가 그를 둘러싼 다른 모든 환자들이 어떻게 진짜로 병들고 미쳤는지 각각의 환자에게 보여준다면, 그 결과로서, 하나의 삼각형적인 파벌[두명의 환자와 한 명의 의사]에서 다른 환자들의 광기를 목격하면서, 문제가 되는 환자는 미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망상을 겪는 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증 또는 우울증적이

>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집착증을 겪는 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이해하게 된다. (Psychiatric Power 103)

마침내 머라이어는 광녀를 관찰한 후에, “광기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 본 후에, 자기 자신의 광기를 알아채도록 기대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광녀에 대한 제마이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라이어가 생각하는 것은 그 광녀의 광기가 아니라 그녀를 미치도록 만들었던 부부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것이다. 머라이어는 “이 불쌍한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수용된 것이 아니”라고, 남편의 폭거 때문에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한다(Wollstonecraft 176). 제마이머는 광녀에 대해 “그녀는 강압 때문에 할 수 없이 질투심이 심한 부자 늙은이와 결혼했었지. ... 그의 폭력의 결과로 또는 그녀의 마음에 고질적으로 자리 잡은 어떤 것의 결과로 첫애를 낳다가 정신이 나가버렸지”라고 말한다(176). 머라이어는 이 이야기에 대해 “세상에나 얼마나 좋은 명상의 주제야 — 광기의 바로 그 유폐지에서까지 말이지”라고 말한다(176).

광기의 유폐지에서 머라이어가 폭로하는 것은 그 광녀의 광기가 아니라, 여성을 미치게 만드는 남성 중심 사회의 비이성(unreason)이다. 머라이어가 광기라는 거울에서 보는 것은 그녀 자신의 광기가 아니라, 남편의 폭거, 정신병원-세계에서 벌어지는 폭력들이다. 머라이어는 정신의학적 시선의 완벽한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광기를 감시하는 주체가 되기를 거부하고, 정신의학의 처벌하는 시선을 견뎌내며, 정신의학적 시선이 내재적으로 지닌 허구성, 폭력성, 불완전성을 폭로한다.

IV. 정신의학 담론

『머라이어』는 근대적 정신병원의 탄생뿐만 아니라, 근대적 정신의학의 탄생 또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정신의학 담론이 여성의 목소리를 광기로 치부해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정신의학 담론에 대한 저항도 보여준다. 마틴(Philip Martin)에 따르면, 여성 자신이 스스로를 재현하는 주체가 아니라 문학적 재현대상이 되면서 18세기에 "여성의 광기에 대한 하나의 신화"가 만들어졌다고 말한다(1). 예를 들면, 맥켄지(Henry Mackenzie)의 『감성적 인간』(*The Man of Feeling* 1771)에서 베들럼 정신병원에 갇힌 광녀는 구경거리일 뿐이며,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이 아니라 주인공인 관광객, 할리(Harley)에 의해 서술된다.

이전 작가들과는 다르게 울스턴크래프트는 머라이어로 하여금 광기를 감금하는 바로 그 정신병원에서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억압적인 제도 내부에서 억압되고 망각되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발굴한다. 『사랑의 광기』(*Love's Madness: Medicine, the Novel, and Female Insanity* 1996)에서 스몰(Helen Small)이 지적하듯이,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들과 그녀들의 광기에 대하여 썼고, 그녀의 글은 여성에 대한 의학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거의 전무하던 시대에 무엇을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28). 이와 같이, 울스턴크래프트의 소설은 여성에 대한 당대의 정신의학 담론에 대해 여성의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

푸코에 따르면, 18세기 후반에 광기의 위험한 힘을 마주하며 그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치료할 목적으로 근대적 정신의학이 발생한다. 사실 "광기의 치료법은 ... '그[광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사 혹은 감시원]에게 엄격히 종속시킴으로써 광인을 복종시키고 길들이는 기술이다'"(*Psychiatric Power* 8). 수용자들은 정신병원 권력에 복종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치료는 저절로 2차적인 보상이 될 것이다"(29). 요약하면, 근대 정신의학은 위험한 광기를 치료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광인을 감금하고, 처벌하고, 훈육하고, 순종시키는 과정과 더불어 형성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평가들은 머라이어의 감금이 그녀의 남편에 대한 불복종과 가부장 사회에 대한 무례함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버그런드(Brigitta Berglund)는 "남성 권위에 대해 반항하는 행위 그 자체가 광기의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에, [머라이어가 자신의 남편을] 떠났다는 것, 즉 억압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가 그녀를 감금시킨 것을 정당화한다"고 말한다(114).

하지만 무엇보다도 머라이어가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이유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 베너블즈(Venables)는 머라이어가 “아기를 낳은 후에 그녀의 행동은 아주 이상했어요. 그녀의 가족 중의 한명을 괴롭혔던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 충분히 감금할 이유가 됩니다”라고 말하며 그녀를 감금시킨다(Wollstonecraft 280). 그녀의 기이한 행동과 우울증이라는 질환 때문에, 머라이어는 “3일 이내에 발급 받아야하는” “광기에 대한 증명서도 없이” 그녀가 미쳤다는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감금된다(Todd, *Mary Wollstonecraft: A Revolutionary Life* 427). 게다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법정은 “광기의 가족력 때문에 [감금은] 신중한 조치였다고 받아들이고” 그녀를 감금했던 것이 정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다(Wollstonecraft 284).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의 저항을 광기로 간주하여 감금시키는 정신병원-세계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울증을 광기로 여겨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던 정신의학 그 자체이다.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머라이어는 외부 현실과 어떤 접촉도 없이, 다른 수용자의 광기를 보고, 망상에 사로잡히고, 광기로 도피하면서, 서서히 미쳤을지도 모른다. 킬고어(Maggie Kilgour)에 따르면, 머라이어는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상상력이 외부 세계에서는 그 어떤 지시되는 내용물도 장소도 갖지 않는 환상들, 너무 오랫동안 탐닉한다면 진짜 광기로 이끌 환상들을 구축하는 장소인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른다(87). 무엇보다도 머라이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고 그리워하는 우울증자이다. 우울증으로 머라이어는 자신의 잘못으로 딸을 납치당했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머라이어의 유산을 갈취하기 위해 딸을 볼모로 삼은 남편의 폭력이 문제인 것이다. 우울증자도 감금 가능한 시대에 정신병원에 감금된 채로 머라이어는 점점 더 우울증이 심해질 것이고, 자기-비난과 자기-질책을 넘어 “소망으로 가득한 환상을 일으키는 정신병(a hallucinatory wishful psychosis)”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Freud 244).

앞에서 말했듯이 제마이머는 머라이어의 음식 거부는 남편에게 납치당한 아기에 대한 슬픔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광기에 의한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녀의 슬

픔은 광기 혹은 정신병이 아니다. 감금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처벌하는 시선에 의해 고통당하고, 망상에 빠져들고, 현실로부터 광기로 도피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로 일어나는 그녀의 슬픔, 우울증은 정말로 광기로 변화될 수 있다. 머라이어는 그녀의 남편에 의해 꾸며진 광기라는 허구, 그녀가 미쳤다는 거짓 주장에 의해 기만당하면서, 즉 자신이 미친 것은 아닌가하고 짐짓 의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정말로 미쳐서 감금되었다고 확신하는 정신병적 믿음(psychotic belief)에 이르러 진짜로 미쳤을지도 모른다. 맥케인(McCann)이 지적하듯이, "광기는 감금의 원인이 아니라, [정신병원의] 권태, 격리, 그리고 훈육 구조의 지속적인 황폐화의 결과"이다(167).

그렇지만 그녀는 끝끝내 정신병원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감내해내며 아기를 되찾기 위해 제마이머의 도움을 받아 정신병원을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머라이어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받았던 억압에 대한 이야기는 동일한 억압을 받은 제마이머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제마이머는 머라이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며, 그녀가 제정신으로 보이는 것은 "번쩍하고 제정신이 드는 순간(lucid intervals)"이라고 생각한다(Wollstonecraft 170).

제마이머는 머라이어가 다른 남성 수용자와 나누는 인간적 교류를 보면서 "기쁨의 눈물"(188)을 흘리고 마침내 모든 "의심의 그림자"(188)를 거두며 머라이어에게 "기꺼이 그녀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189). 이러한 머라이어에게로 향하는 제마이어의 고백은 광인의 광기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처벌하고, 복종시키는 것으로 광기를 더욱 악화시켰던 18세기 후반의 의사-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신의학이 진보하면서 조금이나마 달성할 수 있었던 의사-환자 관계에서의 치료라고 할만하다. 이제 의사는 머라이어이고, 환자는 제마이머이다.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억압적인 국가 장치들 내부에서 그것들을 전복시킬 수 있는 "인간적 교류와 동감의 가능성"이 생겨난다 하겠다(McCann 168).

V. 진실-말하기

18세기 말에 탄생한 근대적 정신의학 담론은 광기라는 허구를 진실로 둔갑시키는 진실-체제로 작동한다. 근대적 정신의학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그가 미쳤는지 아닌지 진실을 말하라고 명령한다. 푸코는 이러한 진실-체제를 진실-말하기(veridicition, *vérité* + *diction*, truth + telling)의 체제라고 말한다. 환자에게 강요하는 진실-말하기를 통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광기라는 허구는 광기의 진실이 된다.

정신의학 담론은 "당신은 누구인가? 이름은 무엇인가? ... 당신의 광기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와 같은 그 자신의 정체성의 규범을 개인에게 고정시키는 특정한 방식"인 고백과 같은 진실-말하기 실천을 생산한다(*Psychiatric Power* 234).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수용자는 자신에게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광기를 "자서전적인 설명"의 과정에서 하나의 진실로 인식하게 된다(158).

정신의학적 질문과 고백을 내면화하면서, 머라이어는 자신이 미쳤는지 아닌지 진단하기 위해 그녀 스스로 자신을 관찰하고 조사해야한다. "진짜로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니?"라는 제마이머에게 건네는 머라이어의 질문은 "때때로 이성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로지 좀 더 자세하게 관찰되어야해"(Wollstonecraft 166)라는 제마이머의 대답으로 돌아오고, 아마도 "내가 진짜로 미쳤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질문은 광인으로 감금되었지만 제정신으로 보이는 수용자를 보면서 그녀는 제마이머에게 "그가 진짜로 미친거야?"라고 질문한다(86).

멀쩡한 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그 남성 수용자를 보고 동정심을 느끼면서, 머라이어는 그도 "나처럼, 광기의 본질에 대해 이성적으로 사유하도록 강요된다. ... 그리고 그 자신이 — 내가 그러한 것처럼 — 거의 미치기를 원하도록, 그것[광기]에 대해 숙고하는 것으로부터 도피하도록 강요된다"고 생각한다(Wollstonecraft 172). 미치 마이어(Mitzi Myers)는 "머라이어는 광기를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거의 그것을 욕망하기까지 한다. ... 머라이어의 병실은 역설적인 자유, 남김없이 그녀의 공상가적인 에너

지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112).

미치 마이어가 언급하듯이 머라이어는 광기를 욕망하고, 미쳤으면 하고 바라기까지 한다. 감금, 남편에게 납치당한 아기, 남편의 폭거, 정신의학적 명령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회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마도 망상 또는 광기로의 도피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이어가 자유의 공간이라고 찬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신병원은 결단코 자유의 공간이 아니다. 만일 머라이어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채로 진짜로 미쳤다면, 즉 정신병자가 되었다면, 그녀는 자신이 미친 것이라는 정신병적 확신(psychotic certainty)에 이르러 자신의 환상이 현실이라고 믿을 정도로 진짜로 미쳤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풀려날 어떠한 가능성도, 아이를 되찾을 어떠한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머라이어가 미친 것이라면, 그녀는 미친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은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의 광기, 즉 정신병과 정신병원은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 억압의 공간이다. 스몰이 지적하듯이, 비평가들의 "히스테리에 대한 찬사는 ... 광기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의학의 역사를 무시한다 — 히스테리와 우울증은 18세기부터 정신질환 수용소들의 대부분을 채워왔던 여성들 대부분을 해방시키지 못했다"(27). 히스테리와 우울증이 감금 가능하고, 처벌 가능한 질환이었던 18세기 후반 동안에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여성은 그녀의 우울증 때문에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금당했다.

머라이어는 광기라는 허구로 도피하지 않으면서 감히 감금이라는 현실, 그녀가 미쳤다는 조작된 현실, 아기를 잃은 엄마의 우울증적 슬픔을 광기로 간주하여 감금시키는 현실을 맞닥뜨리려한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광기라는 허구를 진실로 둔갑시키는 정신의학의 진실-말하기 체제에 문제제기하며, 이를 통해 그녀를 정상화시키는데 실패하는 정신의학 담론의 한계를 폭로한다. 역설적으로, 머라이어의 고백은 정신의학이 의도한 바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머라이어는 정신의학이 강요하는 진실-말하기가 아닌 정신의학에 저항하는 다른 방식의 진실-말하기, 대항-기억, 대항-서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만일 머라이어가 진정으로 미쳤다면, 제마이머를 설득하지 못했다면, 그녀가 제마

이머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아마도 의사에 의해, 또는 제마이머에 의해 검열되고 재서술될 것이다. 또는 그것 그대로 기껏해야 정신 나간 광녀의 헛소리 정도로 여겨질 것이다. 울스턴크래프트는 『머라이어』를 통해 근대적 정신병원과 정신의학이 여성을 억압했던 방식과 더불어서 그녀가 그것들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보이고, 정신병원과 정신의학에 의해 침묵당하고 망각되었던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Notes

1) 울스턴크래프트는 『머라이어』를 집필하던 중 1797년 2월 9일에 자신의 남편 고드윈과 함께 베들럼 정신병원에 방문했다. 고든(Lyndall Gordon)에 따르면, "그녀가 베들럼 정신병원을 방문하기 전까지 그녀의 드라마를 위한 배경으로 정신병원을 탐색하지 않았다" (341).

2) 여기서 광기(madness)는 현대적인 정신의학 혹은 정신분석학의 용어인 정신병(psychosis)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신병은 자신의 망상(delusion)을 현실이라고 믿으면서 환상과 망상에 빠지게 되는 "현실과의 분리"(Lacan 454)로 정의된다. 비어(M. Dominic Beer)는 정신병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졌다고 말한다(177). 따라서 광기(madness)를 정신병으로 정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는 하지만, 18세기 후반에도, 현실과의 유리, 망상, 환청과 환각, 정신병적 확신과 같은 정신병의 증상들은 엄연히 존재하였으며, 이를 광기로 불렀다.

인 용 문 헌

윤준. 「근대 범죄학의 계보학: 푸코의 계보학과 고드윈의 『정치적 정의』와 『케일럽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18.1 (2013): 123-44.

Beer, M. Dominic. "Psychosis: From Mental Disorder to Disease Concept." *History of Psychiatry* 6 (1995): 177-200.

Berglund, Birgitta. *Woman's Whole Existence: The House as an Image in the Novels of Ann Radcliffe, Mary Wollstonecraft, and Jane Austen*. Lund: Lund UP, 1993.

Foucault, Michel. *History of Madness*. Ed. Jean Khalfa. Trans. Jonathan Murphy and Jean Khalfa. London: Routledge, 2006.

_____. *Psychiatric Power: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3-1974.* Trans.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_____.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1978.* Trans.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Freud, Sigmund.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ume XIV (1914-1916)*. London: Hogarth, 1964.

Gordon, Lyndall. *Vindication: A Life of Mary Wollstonecraft*. New York: Harper Collins, 2005.

Gunther-Canada, Wendy. *Rebel Writer: Mary Wollstonecraft and Enlightenment Politics*. DeKalb: Illinois UP, 2001.

Kilgour, Maggie. *The Rise of the Gothic Novel*. New York: Columbia UP, 1995.

Lacan, Jaques. *Écrits: The First Complete Edition in English*. Trans. Bruce Fink. New York: Norton, 2006.

Markley, Arnold A. *Conversion and Reform in the British Novel of the 1790s: A*

Revolution of Opinio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9.

Martin, Philip W. *Mad Women in Romantic Writing*. New York: Martin's, 1987.

McCann, Andrew. *Cultural Politics in the 1790s: Literature, Radicalism and the Public Sphere*. London: MacMillan, 1999.

Miller, Jacques-Alain. "Jeremy Bentham's Panoptic Device." *October* 41 (1987): 3-29.

Myers, Mitzi. "Unfinished Business: Wollstonecraft's *Maria*." *The Wordsworth Circle* 11.2 (1980): 107-14.

Parry-Jones, William Ll. *The Trade in Lunacy*. London; Routledge, 1972.

Sapiro, Virginia. *A Vindication of Political Virtue: The Political Theory of Mary Wollstonecraft*. Chicago: U of Chicago P, 1992.

Small, Helen. *Love's Madness: Medicine, the Novel, and Female Insanity, 1800-1865*. New York: Oxford UP, 1996.

Spencer, Jane. *The Rise of the Woman Novelist: from Aphra Behn to Jane Austen*. New York: Blackwell, 1986.

Todd, Janet. *Feminist Literary History*. New York: Routledge, 1988.

_____. *Mary Wollstonecraft: A Revolutionary Life*. New York: Columbia UP, 2000.

Wollstonecraft, Mary. *Mary, A Fiction and The Wrongs of Woman, or Maria*. Ed. Michelle Faubert. Toronto: Broadview, 2012.

Abstract

A Genealogy of the Modern Madhouse and Psychiatry in Wollstonecraft's *Maria*

Yoon, Joon (Konkuk Univ.)

In *The Wrongs of Woman, or Maria*, Mary Wollstonecraft tells the story of a woman who is imprisoned in a private madhouse even though she is not insane. In this fictional narrative, Wollstonecraft produces a counter-narrative of women's madness, an alternative history of how women were imprisoned in the madhouse, of how psychiatric discourse normalized them, and of how they resisted the apparatuses of the madhouse and psychiatry at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the madhouse, Maria becomes an object of supposedly all-seeing psychiatric gaze and a subject who examines her own madness. However, she reveals the fictionality of such supposedly all-seeing gaze which sees her madness, by proving that she is not mad. And at the same time she becomes both an object and subject of the psychiatric discourse. While answering psychiatric questioning, "Are you mad? If not, prove." she confesses whether she is mad or not. But, paradoxically enough, her confessions come to convince Jemima, an asylum-keeper, that she is not mad. As such, her counter-narrative reveals fictionality and incompleteness of psychiatric discourse itself. Even at the very moment of forgetting and silence, nonetheless, Wollstonecraft's fictional narrative *Maria*, as genealogy and counter-memory, presents how women's dangerous potential always speaks and shows itself problematizing the master narrative of the progressive emergence of reason and truth.

Key Words: Wollstonecraft, *Maria*, Foucault, madhouse, psychiatry

논문접수일: 2017. 09. 15
심사완료일: 2017. 10. 07
게재확정일: 2017. 10. 10

이름: 윤준
소속: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우 0275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나길 62, (장위동)
이메일: chunghak91@hanmail.net